

혈 누 <血의 涙>에 나타난 流民的 삶의 세계

전 기 철*

1. 서 론

이인적의 소설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실증적 연구와, 문학사적 연구 및 작품론적 연구 등의 방향으로 행해져 왔다.¹⁾ 이 연구들은 이인적의 전기적 측면에서부터 문학사적 위치까지 그 논급이 상당히 발전되어 왔다. 또한 이 연구들의 결과로 이인적의 작가적 위치가 설정되어 왔고, 또 「신소설」이 지난 한국 문학사 속의 위치에서 그의 소설이 지난 대표 성등이 정립되었다. 그런데 이인적의 소설에 대한 접근에 있어 작가 개인의 전기적 측면에 의존할 때 작품이 지니는 특성이나 문학으로서의 연구 방향이 한정되고 만다.

이인적이 친일사상을 가렸다면 그 작품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결국 그 작품의 구조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가 시급하다.

* 박사과정

- 1) 이인적에 관한 중요 논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김태준, “조선소설사”, 동아일보, 1930. 11~1931. 2
 - 임화, “개설신문학사”, 조선일보, 1939. 9~1940. 3, 인문평론, 1940. 11~1941. 4
 - 전광용, “이인적 연구”, 서울대논문집, 인문사회과학 6집, 1957.
 - 송민호, “국초이인적의 신소설연구”, 고대문리 논집 5, 1962.
 - 조연현, “개화기 문학 형성과정고”, 한국신문학고, 문화당, 1966.
 - 이재선, 한국개화기소설연구, 일조각, 1972.
 - 조동일,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한국문화 연구소, 1973.
 - 최원식, “은세계연구”, 창작과 비평 48호, 1978.
 - 김윤식, “정치소설의 결여형태로서의 신소설”, 한국근대 소설사 연구, 을유문화사, 1986.

이인직이 친일사상을 가졌으니 <혈의 누>에 일본군을 좋게 묘사하거나 일본인의 은덕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일본인의 진보적 의식(정상 부인의 개개에 대한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연구는 이제 편향적인 것일 수 밖에 없다. 작가의 사상이 작품에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면 별 수 없이 문학은 논설이나 사상 서적 및 역사 서적의 부차적인 존재 이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문학 작품은 작가가 자신의 사상을 표출하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다. 만일 문학 작품이 작가의 사상만을 나타낸다면 가장 논리적이고 직접적인 그리고 선동적인 작품만이 좋은 작품이 되리라 믿는다. 그보다도 문학 작품이 문학 작품인 것은 현실의 리얼리티가 문학적으로 표현되었다는 데에 있다. 이는 작품의 미학적 특성을 통해서 당시 현실의 리얼리티가 나타난다는 뜻이다. 특히 <혈의 누>에서는 작가의 의도가 소설의 주제에 의미를 크게 띠지 못하고 있다 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의 기초 과정을 위해서 필자는 이인직의 <혈의 누>가 작가의 의도나 사상과 얼마나密切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인직의 당시의 사상은 그에 의해 써어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만세보>의 “논설”란을 보면 알 수 있다. <만세보>가 창간된 1906년 6월 17일자에 실린 “사설”란엔 사장인 오세창이 쓴 것으로 되어 있는 제 1면에 제목 없는 사설이 있고, 그리고 제 2면에는 “논설”이라 하여 이인직의 이름이 “주필”이라는 직위명과 함께 써어진 「사회」라는 제목의 논설이 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제 2면에 필자의 이름 없이 논설이 나타나나 말 할 것도 없이 이인직의 논설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오세창의 사설은 제 1면에 실려 있으나 이인직의 논설은 계속해서 제 2면에 실려 있고, 또한 논설의 논지가 이인직의 소설들에 나타난 작가의 사상과 너무도 잘 부합되며, 그 언어적 형태도 유사한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다음에서 그들 중 몇몇을 들어 보기로 하겠다.

고 소국 빙란 일과 리 강국 귀 화 약국 슈 시소
故로小國에兵亂이一起할면利는強國에歸한고禍는弱國이受한느니試思어다
가소금일 최씨 손오용병 지 유 아국 치원 아국인 단비 혁
假使今日의崔氏로하여곰孫吳用兵의才가有할지라도我國의財源과我國民의團體力

2) 만세보(1906년 6월 28일)(이후부터 만세보 인용은 날짜만 기재함).

<血의 涙>에 나타난 流民的 삶의 세계

[157]

세계 강국 전쟁 기 수상년계 속 능력 부 천하만국 공지
으로써 世界의 強國과 戰爭을 起起 야數三年繼續할 能力이 無함은 天下萬國이 共知하는
바라.

<義兵>²⁾ (최씨—최익현<인용자주>)

시 이 명당소회 평민소회구격 어 질시 평민소회 명당소회 협신
是로以이 야政黨社會는 平民社會仇敵과 如히 疾視하고 平民社會는 政黨社會를 天神
여 외경 研究별 소양 어 판이 완구세계 민족소회 일파 조유
과 如히 畏怯하고 야 自然區別이 霽壤과 如히 判異하고 니 球環世界에 民族社會의 一派는 自由
권능 전주 일파 조유권능 전진 등급 아한 상전 조
權能을 專主하고 一派는 自由權能을 專失하는 等級은 我韓에 旣見호者이라

<政黨平民區別>³⁾

일진 일본 합 조진 간도 식환 삼진 만주 연락 연후 동
一進하고 日本을 합하고 再進하고 間島를 索還하고 三進하고 야 滿洲를 聯絡하고 然後에 東
양 일터연방 작 경제 상터 진보 연구 불가
洋에一大聯邦을 作하고 야 經濟上大進步를 研究치 아니하면 不可호도다
부족국가 별방연 장합 인종 감축적 경입 우 아국
否則國家는 滅亡淵에 將陷할 것이 오人種은 또 縮減의에 漸入할 而呼라 我國에
천혈적상 인물 무 아국인 비판 일지
鐵血宰相갓분人物이 無하면 我國民에 悲觀이 日至 히로다

<三進聯邦>⁴⁾

이상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바, <혈의 누>에 나타난 작가의 사상과
똑같다. 즉 이인직의 개인적인 사상은 <혈의 누>에서보다 더 선명히
그의 논설에서 나타나고 있으니, 첫째, 강국에 대한 투쟁이 어려우므로
일본 민주를 합한 연방을 이루어 대응하자는 것이며, 둘째, 보수적인
관료 계층의 탐관적 성격에 대한 규탄과 일반 민중의 어리석음에 대한
탄식이며, 세째, 교육을 통해 실력을 기르자는 것이다. 이 세 측면은
그의 논설의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친일적 개화사상
도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상을 이인직의 소설에서 찾
아보려 한다면 쉽게 찾아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평안도 봉성은, 옛 나퇴왕이 둘이라, 옛나는 황천에 있고, 옛나는 평양선화당에 안
것는 감이라, 황천에 있는 옛라디왕은, 나만코병드려서, 인간이 성가시게 된, 사
람을 잡아가거니와, 평양선화당에 있는 감사는 몸성하고 짐풀잇는 사람은, 낫낫치자
바가니, 인간염라디왕으로, 집집에 터주까지 겹Hon, 겹판이 되앗는지, 고사잘지니
면, 탈이업고, 못지니면 원집안에, 동토가나서, 다죽을지경이라, (...)더구나

3) 1906. 6. 30

4) 1906. 7. 20

5) 1906. 7. 28

남의 나라 사람이 와서, 싸움을 헤는니, 질 알을 헤나니, 그러 흔고서 슬에, 우리 눈 끈
가 헤고 사람 죽는것이, 다 우리나라 강 헤지 못 헤탓이라⁵⁾

독해

구씨의 목적은 공부를 심써 헤야, 귀국한뒤에, 우리 나라를, 독일 국과 갓치, 연방
을 삼아서, 일 본파만주를, 한 퇴합 헤야 문명한 강국을 맨들고 온 흥(비 소 익) 갓한
마암이오, 옥연이 눈 공부를 심써 헤야, 귀국 헤뒤에, 우리나라 부인의 지식을 널려서,
남조의 계 압제를 밟지 말고, 남조와 동등권리를 찾게 헤며, 쪼부인도 나라에 유익한
성이 되고, 소회상에 명예잇는 사람 이 되도록, 교육 할마 응이라⁶⁾

이인적의 의도는 이처럼 작품 속에서 선명히 나타난다. 작가의 의도
가 작품 속에 선명히 나타나는 것 이외에도 억양을 통해서 작가는 자신
의 사상을 암묵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소설이 현실의 인간 생활을 그린다고 볼 때 작가는 절대적으로
자신의 표면적인 주관적 사상만으로 소설의 세계를 이를 수 없다.
그런데도 이인적은 자신의 의도를 강하게 주입시키려 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그런 이인적의 의도는 작품내의 인물들의 삶에 어울리지 못하
고 물과 기름처럼 표가 나고 있다. 작가가 자신의 사상을 당시의 현실
적 삶을 통해서 제시하려고 하지만, 작품에 나타난 바로는 작가의 의도
가 작품내에 용해되지 못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가 <혈의 누>를 이인적의 전기적 측면만으로 규정하는 대는 일면적 언
급 이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혈의 누>를 이인적의 사상적 측면이 내
포된 당시의 현실적 삶이 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줄 안다. 그래서 <혈
의 누>는 작가의 의도보다는 당시의 민중의 삶이 부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혈의 누>가 갖는 최고의 특징은 곧 현실성의 부자이라는 점이다. 청
일전쟁의 피해로 인해 훑어지는 일가의 비극과 그 비극을 통해서 우연히
얻게 되는 새로운 학문파의 접촉이라는 문제가 이인적의 개화사상이 국
부적으로 관련되었던 안되었던 간에 당시의 현실적 삶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혈의 누>의 이야기이다. 청일전쟁이 우리
나라의 역사에 끼친 획시기성이 문학적으로 잘 나타나 있건⁷⁾ 없건 간에

6) 1906. 10. 4

7) 임화, 속신문학사, 조선일보(1940. 4. 24)

〈혈의 누〉는 청일전쟁 전후의 한국사에 나타난 생활을 현실적으로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는 작품이 작가의 창작의도보다는 시대적 사실성과 더 깊이 관련되고 있다는 뜻이다. 청일전쟁에서 외국군의 횡포와 한국인의 피해와 가족의 해체, 그리고 “유리”되는 사람들, 필연적이 아닌 우연적인 만남, 가족의 생사를 찾기보다 외국 유학을 가야겠다는 의지, 우리의 전통적인 관습과 외국 관습의 혼류 등등 어느 것 하나도 당시의 사실적인 현상 아닌 것이 없다. 이는 한 마디로 혼란이다. 청일전쟁 전후 우리의 근대화 과정이 앞이 보이지 않는 혼란 속에 휩싸여 있었음을 그 시대의 가장 추상적이며 전체적인 현상이다. 신분구조의 해체나 보수—개화의 극단적인 목소리들 속에서 일반 민중들은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놓인다.⁸⁾ 이런 속에서 이인직의 목소리는 단지 일면적인 양상 이상이 되지 않는다. 그만큼 〈혈의 누〉에서 친밀적 요소가 “옥연”이나 “옥연모”的 고난의 과정에 비해 얼마나 사소한 것이며 피상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는가는 작품에 직면해 볼 때 금방 나타난다. 그래서 이인직의 통제 속에 〈혈의 누〉의 인물들이 조종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인직은 당시의 민중들의 삶의 양상을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려 했으나 결국에는 개화기의 한국민, 특히 청일전쟁 이후의 한국민의 삶의 양태를 문학적으로 형상화 하였을 뿐이다. “옥연”이나 “옥연모”나 “김관일”이 이인직의 분신이 절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런 등장인물들은 인격화를 통해서 당시의 현실적인 인간으로 확대될 수 있다 하겠다. 단지 이 인물들을 통해서 이인직과 대화성을 갖는 것일 뿐이다.⁹⁾ 이인직이 이들 인물들에 대해서 자기의 사상을 주입시키려 하나 그 인물들은 이인직의 그런 개화사상을 사소한 것으로 따돌려 버리고 만다. “옥연모”가 일인 현병에 의해 구조되는 것에서 보면, “옥연모”的 가정파탄에 비해 일인 현병의 역할은 소설의 주제에 일부분적인 영향, 그것

8) 대학신문사편, 한국근대사의 재조명, 《서울대 출판부, 1982 (1977)》

여기에서 여러 필자들에 의해 한국근대사에 나타난 혼란과 다원적 대처 양상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김용직 교수의 한국근대문학사논고 《서울대출판부, 1985》에는 문인들의 대처양상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9) 소설의 언어학적 연구에서 담화론은 이와 같은 인물의 작가, 독자와의 대화성이 그 중요한 일면을 이루고 있다. 해석학이나 소설의 구조학이 이와 관련된다.

도 아주 사소한 영향에 지나지 않는다.¹⁰⁾

이인적이 《都新聞》사 견습생에서 시작하여 《국민신보》《만세보》의 주필을 거쳐 《대한신문》사장이 되었으며, 한일합방 무렵에는 이완용의 비서역을 맡았던 점에서 우리는 그가 관찰과 보고에 능숙했음을 금방 이해할 수 있다.¹¹⁾ 신문이나 비서의 역할은 사실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사실대로 보고하는 데 있다.

이인적이 이러한 신문의 서술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소설의 이야기 방식을 은연중 배운 것이다. 즉 청일전쟁 이후의 한 가족의 파멸 양상을 보고식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한국인의 혼란의 양상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 만큼 〈혈의 누〉의 인물들은 작가 이인직의 의도에서 독립되며, 이인직 유형의 인물은 〈혈의 누〉의 인물들 내의 한 유형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일 청 전 징
日清戰爭의 총소리 는, 평양 일경
平壤一境이 써누가는 듯 흐너니. 그 총소리가 굿치미, 清人
의 죄 죠수 추풍 낙엽 일본 서북 향
의敗軍士는 秋風에 落葉갓치 흘러지고, 日本군사는 물미듯西北으로 向호 야가니 그
산 뒤는 山과 들에, 사람죽은 총장뿐이라¹²⁾

이와같이 한 사건을 전체적인 조망을 통해서 보여준 다음에 다시 세세한 부분부분을 묘사하고 있다. 〈혈의 누〉를 어쭙잖은 개화론의 회생물로서 이해하기보다는 청일전쟁 이후의 한국인의 혼란의 양태의 제시로 이해할 때 보다 깊은 통찰에 들어갈 수 있다.

이인직은 친일 개화론자의 입장에서 이런 현실의 문학적 제시 방식을 가진 것이다. 그 절은 그 자신이 당시의 민중적 삶의 양식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반봉건적 개화론을 퍼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한 데서 나온

10)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주제론”을 따진다 하더라도 이인직의 작가적 의도는 주제를 강하게 부각시켜 주는 주된 장치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주제의 확대라고 볼 수는 있다.

11) 전광용, “이인직 연구”, 《서울대 인문사회과학 논문집 6집, 1957》
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제국 관원 이력서, 《탐구당, 1975》

김윤식, “정치소설의 결여형태로서의 신소설”, 한국근대소설사연구, 《율우문화사, 1986》

12) 1906. 7. 22

듯하다.

본 연구는 이와같이 〈혈의 누〉가 지니는 현실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작품의 형식과 내용에 접근하여 작품의 구조를 찾아낸 뒤 그를 사적으론 정립하려고 하는 데 있다. 〈혈의 누〉를 한국문학사 속에서 파도기성으로만 보는 것을 벗어나자는 것이 본 논고의 의도이다.

2. 〈혈의 누〉에 나타난 유민적 삶

1) 〈혈의 누〉의 텍스트 선택

〈혈의 누〉는 사실상 대략 네 개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나 그 사적의 미를 따질 때 두 개의 형태만이 남게 된다.¹³⁾ 〈혈의 누〉를 논의함에 있어 텍스트를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하나는 『만세보』에 53회 연재된 최초로 발표된 〈血의 涙〉이고, 다른 하나는 광

13) 현재 〈혈의 누〉의 형태는 4개가 존재한다. 하나는 신문연재본으로서 확실히 이인적이 쓴 〈혈의 누〉이고, 나머지 세은 이인적이 개작한 것인지 아니면 어언 다른 사람이 시류에 맞게 개작한 것인지 현재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신문연재본 이외에는 이인적이 자신의 개작이기 보다는 출판사의 자의적 개작일 가능성이 크다. 광무 11년의 단행본이 오자가 많고 국문위주로 만 된 것은 이인적의 개작의도가 국문전용이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문장』(1940. 2)지의 〈혈의 누〉는 그 내용이 약간 첨삭되어 있으며, 완전 현대국문체로 되어 있다. 임화가 그의 『신문학사』를 쓸 때 바로 이 『문장』자의 그것과 같은 본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아마 시중에 떠돌아 다니는 이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임화가 자신의 『신문학사』를 쓸 때 여기저기 시중의 판본을 수집하여 텍스트의 검토 없이 인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혈의 누〉의 제작연대를 〈치악산〉 〈온세계〉 다음에 두고 있는 점과 그 연대를 1908년 10월 이전으로 소급할 수 없는 점에서 이 판본은 1909년 이후에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12년 12월에 「동양서원」에서 1912년 11월 〈모란봉〉이 나오기 이전에 〈혈의 누〉가 〈모란봉〉으로 개제되어 나왔다. 그렇다면 임화가 본 〈혈의 누〉는 최소한 1913년 이후에 나온 것일 가능성이 크며, 또한 해석판일 가능성 또한 크다. 다음으로 〈露中秋月色〉이란 표제하의 〈혈의 누〉는 모란봉의 내용까지 있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시중에 떠도는 해석판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볼 때 그 문학사적 위치에 있어서 〈혈의 누〉는 1906~7년 이후로 넘어올 수 없는 작품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를 인정할 때 신문연재본이나 1907년 번역본만이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4개의 형태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수용미학으로 논의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나 필자가 채택한 신문연재본의 텍스트 문제는 본문에서 설명될 것이다.

무 11년에 단행본으로 나온, 개작된 〈혈의 누〉이다. 이 양자의 문체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조연현의 “개화기 문학형성과정고”라는 논문에 개작의 형태와 이유가 밝혀져 있다. 조연현이 개작의 동기를 외부적 압력과 작가의 내부적 사정으로 보고, 전자는 친일배청사상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고, 후자는 구어체를 통한 문학적 기교에의 착안으로 보고 있다.¹⁴⁾ 그리고 그는 이러한 개작이 내용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다.¹⁵⁾ 하지만 이는 내용과 형식을 분리시키는 이원론적인 입장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러한 형식의 개변은 이 작품을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만들고 있음을 간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 그 두 양상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이제아침 이 방에 피란 셋방 아무것노려노흔 오늘아침 김관일
 昨日朝에此房에서避亂 갈때에는房가운디何物도散亂것여섯더니수日朝에金冠一
 외국 걸십 무엇 벼장
 이가外國에가려고決心하고, 누갈때에何物을차느라고, 나라속 壁藏속에잇는器
 간 物을, 낫낫치니여놋코櫃門도여려놋코籠門도여려놋코櫃작우에籠怍도놋코籠怍우
 꾀 柜怍도언젓는듸, 端正히노힌것도잇지마는即너려질듯흔것도잇섯더라¹⁶⁾

어제아침에 이 방에서피란갈씨에눈 방가운디 아무것도 노려노흔것여섯더니 오늘아침에 김관일이가 외국에가려고결심하고 누갈때에무어슬찻너라고다락속에잇는세운낫쓰치니여놋고 꾀문도여려놋코 놋문도여려놋코 꾀怍우에놋怍도놋코 놋怍우에 꾀怍도언젓는듸 단정히노힌것도잇지마는 끗내려질듯흔것도잇섯더라¹⁷⁾

이상에서 앞의 연재본과 뒤의 단행본 사이에 틀린 점은 ① 한자와 훈석(혹은 음석) 병기와 훈석(혹은 음석), 즉 순국문으로 표기되어 있으

14) 평론선집 2, 『어문학, 1970』 pp. 108~14

(그런데 조연현이 지적한, 개작본에서 민영준이 친급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개작본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불찰이다. 개작본에도 “민영준”이라 하여 나와 있다. 그리고 이 민영준이라는 인물은 당시 선존 인물로 내외의 여러 요직을 거친 수구파 세도가였음을 당시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동학혁명 때 袁世凱를 불러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15) 전계서, p. 108.

16) 1906. 8. 1

17) 신소설번역(역) 소설1, 『아세문화사, 1978』, 영인본, p. 17.

며, ② 띠어쓰기가 (,)로 표시되었으나 띠어쓰기를 귀절별로 하고 있으며, ③ 일본식 한자 표기가 연재본에는 있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중국식 한자와 일본식 한자 및 국어의 병기는 근대소설의 형태의 발전에 상당히 뒤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 조연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최초의 〈新小說〉이 일본 문장의 영향 아래 써어졌다는 자명한 사실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로 중국 문장도 일본 문장도 아닌 무국적의 문장으로써 써어진 것을 의미한다. 문학이 언어예술이라는 절대적인 원칙에 의해 생각해 볼 때 소설이 그와 같은 허공에 뜬 문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국문 표기를 병기함으로써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의 실현을 보여준 것인데 국문 표기는 어디까지나 병기한 것에 지나지 않고 주文은 그와 같은 어느 나라 문장도 아닌 것에 의존되어 있다. 이것이 최초의 「血의 涙」에 보여지고 있는 표기 형식이다. 그러나 개작된 「血의 涙」에는 최초의 「血의 涙」에 병기되어 있는 국문이 주文으로 자리리를 옮겨갔다.¹⁸⁾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된 이 「무국적의 문장」 만이 〈혈의 누〉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다 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문장 형태는 곧 〈혈의 누〉가 지향하고 있는 혼란의 현실적 실체로서 드러날 수 있게 해 주는 요소라고 여겨진다.

그만큼 〈혈의 누〉가 지니고 있는 개화기문학 작품으로서의 특이성은 개작된 국문 편향의 것보다는 신문연재본이 더 개화기 문학적임을 말해 준다.¹⁹⁾ 이때 국문체의 〈혈의 누〉는 번역체로서의 국문체이거나 당시의 여론에 편승된 것이거나 개화파의 국문체지향(독립신문의 경우)에 편승된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에서 신문 연재본 〈血의 涙〉의 문체를 국한문체 면에서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청일전쟁의 직접적 도인인 동학혁명이 조선 말기부터 계속되어 온 민

18) 조연현, 전개논문, p. 111.

19) 여기에서 「개화기 문학적」이라고 한 것은 개화기의 현실을 그 형식과 내용의 일치면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연재본 〈혈의 누〉라는 뜻이다.

란의 대규모적 형태에 불과하며, 한국 근대사의 초기가 정치력을 통한 적극적 대응의 부재와 외세에 대한 자생적 대응 방식의 약화에서 기인한다고 볼 때, 즉 지배층이 자율적으로 국가의 제반 사항을 통제하고 이끌어 갈 힘이 없을 때, 일반 민중들의 생활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다.

이런 불안과 혼란이 〈혈의 누〉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다, 즉 청일전쟁이 가져오는 분위기는 이 소설의 중요한 의미를 풍기고 있다.²⁰⁾

소설의 첫 부분부터 청일전쟁의 전제적인 분위기가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청군과 일군과의 전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산화되는 한국민의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청일전쟁의 영향은 이 소설 전체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다. 청일전쟁으로 인해 옥련의 가정이 파괴되고, 옥련은 고아가 되어 유랑의 길을 걷게 된다. 그리고 우연하게 외국 유학을 하게 되며, 또 우연하게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이러한 것은 한국민의 수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청군이나 일군 및 일인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좋은 대조가 된다 할 수 있다. 정상 군의의 적극적 행동이나 정상 부인의 적극적인 자세에 비해서 옥련이나 옥련모는 극히 소극적이고 피동적이다. 나아갈 방향을 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혈의 누〉가 문체의 혼란, 즉 한자와 일본식 한자와 국문이 혼재 해 있는 현상은 펼연적인 것이다. 〈혈의 누〉가 현실을 문학화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펼연적인 것이다. 주문장이 이런 중국, 일본 한국적 문장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음은 혼란의 언어적 형상화를 말해 주고 있다. 「무국적 문장」만이 〈혈의 누〉의 현실의 문학화를 가장 잘 내보여준다고 하겠다. 개화기 초에 여러 외국 세력의 침입이 전쟁이라는 내용적 배경과 함께 형태적으로 「무국적 문장」을 이룬 것이다.

이런 「무국적 문장」에 대해서 이인직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작일 한문 불식 즈 동방 일출 반우 중만 락세 인 열등
昨日까지漢文을不識하는者가東方에日出하고飯孟を充滿한 면樂世로認한 면劣等

20) 김윤식, “문학적 풍경의 발견”, 한국근대소설사 연구, 《을유문화사, 1986》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일청전쟁’의 감각(승리자 일본의 정치감각)이 먼저 있고, 그것에 의해 〈혈의 누〉의 배경, 인물, 줄거리, 사상 등이 만들어진 것이다. ‘일청전쟁’이 이 작품의 구성, 내용, 문체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 작품의 작가는 이인직이 아니라 ‘일청전쟁’이다」(p. 68)

이런 전쟁의 도입으로 문학을 유언비어와 관련되고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인물 자금이후 국문 습 상재 일일 공 비 통 허지
 人物이라도 自今以後로 國文을 習^フ면 上才는 一日의 工을 費^フ야 通^フ것이 오비록 下才
 십수일간 필야^フ통 연후 본보 구락 외국형세 지 아
 라도十數日間이면 必也能 通^フ지니 然後에 本報를 購覽^フ면 外國形勢도 知^フ것이오 我
 국정황지

국情況도 知^フ것이라 (...)

본보 활자 부속국문 유 문법 언문일치 용 목적 사회진보적주의
 本報의 活字는 附屬國文이 有^フ고 文法은 言文一致를 用^フ고 目的是社會進步의 主義
 일일경세종작 동포 고 길성 차 과 무
 日警世鐘을 作^フ야 同胞의 告^フ노니 吉聲이 此에 過^フ함이 無^フ나^フ오

〈吉聲²¹⁾

이상의 언급을 통해서 볼 때 「무국적 문장」의 의도는, 첫째, 내외국의 현실의 정세파악과 사회진보주의의 표현, 둘째, 언문일치를 위해서이다. 먼저 내외국의 현실의 정세 파악을 위해서 있는 만세보의 존재는 종래의 한자와 국문의 혼성 표기에서 새로운 일본식 한자의 혼입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 이전의 혼란된 문장 표현을 낳았으며, 언문일치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도 훈석과 음석의 혼재를 통한 번역투 이상이 아니다.²²⁾

주문장의 혼란된 언어체계, 이것이 일본식 한자의 개입을 통해서 형성되었음을 이인직의 친일적 개화론이 어떤 것이건 간에 기존의 문학의 언어체계의 혼란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한국 개입 현상은 친일적 개화론자인 이인직으로 하여금 현실의 혼란된 정황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다.²³⁾ 청이 기존부터 한국 정세에 개입해 있었던 것에 비해 일본의 개입은 뒤늦은 것으로 가장 현실적인 실세화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주문을 「무국적 문장」으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더욱이 한자와 일본식 한자의 표현이 주문장의 테두리에 속하여 있다. 특히 현실의 문제를 다룰 때 더더욱 이런 「무국적 문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고대소설적인 설화적 이야기 속에서는 순국문체가 우선해 있음을 보게 된다. 이는 「무국적

21) 1906. 7. 25

이 “길성”이라는 논설은 만세보의 특징을 밝힌 것이다. 만세보의 이런 지향에 〈혈의 누〉도 자연 같은 보조였음은 당연한 것이라 여겨진다.

22) 이런 훈석과 음석의 병기는 그의 논설 〈길성〉 외 몇 논설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23) 개화기의 국한문체가 역관계층과 관련된다고 볼 때 (이기문, 개화기의 국문 연구, p. 17) 역관 계층으로서의 이인직의 문체선택과 관련된다. 이인직은 노일전쟁 당시 일본군의 한어통역관으로 활동했으며, 제국의 친일 정부와 통감부 사이를 왕래한 장본인이다.

문장만이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주인공 육련은 사실상이 「무국적 문장」의 수업자이다. 육련이 정상 군의와 언어가 불통되고, 정상 부인과도 언어가 불통되나 결국 유창한 일본어를 습득하고나서 순수 조선적 요소를 상당히 말끔히 없어버리게 되며, 그가 한문에 대한 실력이 있는 구완서와 만나게 되는 것도 이런 국문, 일본어, 한문의 혼합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⁴⁾ 그리고 〈보란봉〉에 가서 구완서와 육련이 애정적 갈등을 일으킬 것은 미리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혈의 누〉에서는 영어라는 테두리에서 다시 혼합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무국적 문장」이 습득되기 전에는 상호 언어불통이 일어나며, 이 언어불통은 상호 이해를 저해한다. 육련이 일어, 영어, 중국어에 대한 이해 불능에서 온 언어 불통으로 눈치와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은 그의 기구한 운명과 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 통 고
言語를 通치 못하는 故로, 어린 셋 싱들이, 엊지 헤면, 조흘지, 아지 못 헤야, 육연
일어
이가, 지향업 시 사음 흘리 헤야, 日語로, 무습 말을 푸르니, 書生의 마음에는, 육연
영어
인가 英語를 조금 알면서, 겸사로, 모른다 한 줄로 알고, 아라 듯지도, 못 헤는 소리를,
밧삭드려 셔서 듣는 그 육연의, 키로, 둘을, 포기 세여 도쳐어다 불듯 훈, 키 큰 부인
이, 얼굴에는, 새그물갓 훈 것을 쓰고, 무밋동갓 치, 쇠꽃한이 린아히를, 암해세고
싱
지나가다가, 육년의 말 헤는 소리를 듣고, 무엇이라, 대답 헤는 지 書生과, 육연의 귀
에는 [바바…] 헤는 소리 갖고, 말 헤는 소리 갖지는 아니 훈지라

24) 국한문체의 지향이 신지식의 수입과 관련되나(이기문, 개화기의 국문연구, p. 24) 여기에 일본식 한문이 판여된 새로운 국한문체라는 이상 현상이 보인다. 그리고 당시의 논설들이 국한문체를 과도기적 혼란의 양상임을 신채호의 한 논설에서 찾아보기로 하겠다.

“同一한 事項, 同一한 句語를 五人이 叙述함에 十人이 不同하여 文法의 離奇함이 名狀기 難하니, 噩라 此가 비록 細事인 듯하나 其實은 著者가 此를 由하여 其心이 荒하며 讀者가 此를 由하여 其腦가 欺하고, 抑彼青年學文者は 筆을 操하매 所從의 途를 莫知하리니 其害가 豈小하리오”(“文法을 宜統一”, 전집하, p. 380)

또한 〈독립신문〉의 국문체는 무엇인가는 문화의 내외적 대결과 관련시켜 짜여야 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데올로기의 대결의 양상을 통해서 국한문체와 국문체, 한문체 사이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는 개화기의 국문체 지향과 관련된다. 그리고 국문체의 다기한 양상도 문제된다.

그부인이 뒤에 [후로고투] 입은 남자男子를 도라보면서 또 [바바…] 흔니, 그 남자는,
청국清國 말을 흔는 양인洋人이라, 청국清國 말로, 무숨 물를 흔는 디書生과, 옥연의 귀에는, 또
[바바] 흔는 소리 고말소리 고지, 아니 흔다.²⁵⁾

한편 국문이 부수적인 번역적 문장으로 쓰인 것은 한국인의 피동적 자세와도 관련된 것이다. 당시의 현실에 피동적으로 이끌려 간 것에 대한 문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옥련의 운명이 피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국문체가 단지 부수적인 병기에 그친 현상과 깊게 관련된다. 이인직이 그의 첫 작품인 〈小說 短篇〉에서 「이 小說은 國文으로만 보고 漢文音으로는 보지 말으시오」²⁶⁾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인 문장으로서의 국문체는 부가적인 것 이상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국문의 부가가 한자 해득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의의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신문 연재본이 지니는 문학사적 의의는 국문 편향의 개작본보다 더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2) 유민²⁷⁾적 삶의 세계

〈혈의 누〉가 청일전쟁으로 파괴되어 흩어지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그

25) 1906. 9. 18

26) 1906. 7. 3.

27) 「유민」이라는 말의 유사개념에 浪人, 流浪民, 流移民이라는 용어들이 있다. 그러나 浪人은 流浪民의 단수개념으로 일정한 목적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이며, 유랑민의 개념은 浪人の 집단개념으로 그런 거래를 일컫는다. 그래서 유랑민은 Gypssy 와 遊牧民까지도 포함한 큰 개념으로 쓰인다. 또한 “流移民”이란 용어는 현규환의 『한국유이민사』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이민”은 외국에 이주한 백성들이라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만주나 일본, 미국 등에 이주하게 된 백성들을 일컫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유이민”的 개념을 필자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여 오히려 “流離民”的 의미로 써서 조선조 말기에 형성된 하나의 民이라 는 집단 개념으로 쓴 것이다. 하나의 민중집단의 형태로서 流民이라는 개념을 채택한 것이며, 이 개념의 역사, 사회적 형성 축면을 고려하여 사용한 것이다. 즉, 지배층, 및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새로운 세력을 지닌 집단 형성으로서의 民인 것이다. 이 民이 소설과 관련될 수 있는 근거는 이 民의 형태와 이념에 관련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民의 담화적 요소가 역사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동학도들이 사용한 遣民의 개념도 流民속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런 것이기에, 이야기는 주로 집을 떠나 유랑하는 인물들 주변의 사건들이다. 그런데 조선 땅에서의 사건이 21회이고, 일본 땅에서의 사건이 19회이며, 미국 땅에서의 사건이 13회이다. (총 50회이나 32회 36회, 44회가 두 회로 연재됨. 그래서 실제로는 53일간 연재됨.) 그리고 이 50회 중에서 집에서의 이야기는 14회(7-10, 13-17, 47-50회) 밖에 되지 않고 집 밖의 이야기가 39회나 된다. 너무기 가족인 3인이 함께 모인 것은 한번도 없으며, 옥련과 김관일이 만난 것도 4회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옥련의 이야기가 전체 중 32회이며, 이 32회는 모두가 옥련이 외국에서 떠돌아 다니는 이야기이다. 그만큼 <혈의 누>는 한 가족이 전쟁으로 흩어져 ‘유리(遊離)’하고 있는 양상을 주로 옥련의 유랑의 길을 따라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이 옥련의 비극적인 삶의 세계를 보여준 것은 강한 감응력을 현실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7세의 어린 여자 아이가 언어나 관습 등 모든 면에서 낯선 이국에서 현실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면서 끝없는 유랑의 길을 걷는 것은 한국의 근대사 초기의 대표적인 민중의 삶의 양태를 보여준 것이라 여겨진다. 정상 부인의 은덕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구완서의 덕을 입어 미국 유학을 한다고 할지라도, 개화된 세계에서의 유학은 극히 우연적이며 부차적인 것으로 제시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거나 그 유학에서 얻은 학문이 유용하게 쓰일 근거도 없으리라는 것은 뻔한 이치이다.

신세 타령을 헤며, 옛 일도 싱자 헤고, 암일도 걱정 헤는 듯, 뜻을 명치 못한다

어—, 세월도 쉽고 누

일본 미국

日本서 米國에로, 건너오면 날이 어제 고고 누

일본터 판 살소학 출업

니가 日本 大坂 잇슬썩에 異常小學卒業 헤언 높은, 헬로밤에 두번 올죽으려고

헤얏더니, 오날은 또 엿셔 헤, 팔자사나운일이 누, 업슬런지

니가죽기가시려서, 죽지아니한것도, 아니오

공부

工夫 헤고자 헤야, 이곳에 온것도 아니라²⁸⁾

옥련의 유랑 생활이 지닌 이와 같은 완강성으로 인해 개화파의 계몽

책 의도로서의 유학은 완전히 무의미한 것으로 밖에 놓이지 않는다. 특히 개화 교육의 수혜를 「운수불행」²⁹⁾으로 인한 운명으로 보는 위치에서는 외국 유학이나 계몽성이 오히려 본질적으로는 비극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민중 쪽에서 보면 외국 유학이나 계몽성이 현실적인 삶의 세계에 비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래서 구완서가 나타난 이후 미국 유학의 이야기는 현실적 배경을 거의 상실한 채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추상적인 내용들 뿐이다. 신식 결혼 약속이니 계몽이니 3국연방설이니 하는 친일 개화론자 이인직의 목소리가 작품으로 끼어들고 있다.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 속에 부녀 상봉이라는 해피엔딩의 결말이 허구적이고 진실성이 없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그 상봉은 어떤 감격도 동반하지 못할 것은 뻔하다. 그래서 옥련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엉뚱한 생각을 한다.

야전 병원
충무고野戰病院
정상군의 터판소학교 출입 불행 사기
으로, 가든일과井上軍醫의 집에 가든일과大坂小學校에서卒業한 돈 일과不幸한 사기
터판 동경 기차 구완서 절처봉침
로大坂을 쑤는 든일과東京가는 汽車을 타고具完書를 만난 서絕處逢生한 돈일률, 낫낫
치 말하고, 그 말을 맞치더니, 다시 얼굴빛이 변하고 눈물이, 도니, 그 눈물은 부모의
경에, 관계한 눈물도 아니오, 제신세 싱각하고 눈물도 아니오, 具完書의 恩혜를, 싱
각하고 눈물이라

(옥)아버지, 아버지께서, 날갓 불효한 不孝의 셀률, 만느보시고, 것부신마음이, 잊
거든具氏를 차져보시고, 치사의 말씀을 구씨하여 주시면, 조케습니다.³⁰⁾

옥련이 아버지와 상봉해서 구완서의 은혜에 감사를 할 것을 요청하며 그 「치사의 말씀」으로 사실상 김판일은 팔과 혼인해 줄 것을 요구하며, 그리고 옥련의 구완서와의 혼약이 이에 범춘다고 할 수 있다.

김씨 구씨 대
金氏가具氏를對^하야^하는 말이, 간단한 두마디뿐이라
한마의 눈^{구씨}옥련이가, 신세지 혼치 시오
한마의 눈具氏가 故國에도^{고국}래고 뒤에, 옥년으로^하여 꼼具氏의 箧篋를 밟들고 百年

29) 1906. 9. 13

30) 1906. 10. 2

가약 約
원 意
佳約잇기를 원하는지라.³¹⁾

사실상 김관일의 혼약 제의는 이미 옥련에 의해서 일차적으로는 제의된 것이기에 중개 역할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한다. 이런 현실적 갑작 속에 놓인 유랑인인 옥련의 삶 속에 계몽이니 교육이니 자유결혼이니 하는 추상적인 것이 끼어들 틈이 있겠는가. 나 하나의 운명도 예측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런 추상적인 개념들이 어떻게 끼어들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수긍할 때 <혈의 누>의 결말이 친일적 개화론자 이인적이 억지로 맷어 놓은 「上篇終」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실제로는 이 소설의 의미는 끝나지 않았으며, 끝날 수 없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것은 그 하편으로 <보란봉>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조선에서의 현실 때문이다.

구완서와 옥년이 가, 누이 어려서, 외국에 간 사람들이라, 조선사람이, 이 럻 케야 만되고, 이 럻 케 용념 훈줄을 모로고, 구씨던지 옥년이 던지, 조선에도 려 오는 날은, 조선도 뮤지호 사음이 만히잇셔서, 학문잇고, 지식잇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일을 찬성 해야구씨도, 목적티로 되고, 옥년이 도체목적티로, 조선부인이, 일체히, 너교혹 을 바다셔, 낫낫시 누와 깃호학문잇는 사람들이, 만히성기려니, 성각하고 일변으로 깃불마음을, 이기지못하는거순, 제 누라형편모르고, 외국에 유학한 소년 학성예거 에서, 누오는 마음이라³²⁾

이런 인식이 친일적 개화론자의 것이라든 그 반대 쪽의 것이라든 이야기는 같은 것이다. 조선내의 현실이 아직도 혼란의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옥연모’가 있는 곳인데 하튼 개화론이니 계몽이니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를 떨 수 있겠는가.³³⁾ 그들이 만일 귀국한다면 삼각 관계의 연애 속에서 갈팡질팡할 것이 뻔한 것이다. <보란봉>에서 개화니 계몽이니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 개화기 소설에서의 개화 계몽사상이

31) 1906. 10. 2

32) 1906. 10. 5

33) 옥연모는 때일 근심·걱정을 하며 지낸다. 남편이나 자식이 없는 현실이 중요하지, 그들의 교육에는 관심이 없다.

지니는 허구성이 이만큼 보잘 것 없는 환상의 세계에 속함은 말할 것도 없다. 소설은 완강히 현실의 삶을 떠나서는 그 토대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 현실이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이 곧 소설의 흐름인 것이다.

다시 ‘옥련’의 이야기로 넘어가기로 하자.

도대체 ‘옥련’의 유랑적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 마더로 운명의 힘에 대한 자아의 왜소함이다. 동북아의 역사의 흐름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에 짓밟혀 허덕이는 인간의 모습이 〈혈의 누〉이다.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한 몸도 간수하기 힘드므로 민족이나 국가나 세계의 역사는 상정 이상으로 파악될 수 없다. 그래서 소설의 내용은 그 인간의 자기 몸 간수하기로 나타난다. 그 자기 몸 간수하기의 과정은 수많은 미지애로의 여로 속에서 진실된 자아가 허물어지고 세속화의 과정을 통해서 현실파의 관계를 맺게 되는 이야기이다. 〈혈의 누〉에서 “옥련”이 일곱 살이란 어린 나이로 청일전쟁을 만나 집이나 부모를 잃고 유랑하는 과정은 “옥련”이라는 유아가 세속적 경험을 통해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이야기이다.

그럼 〈혈의 누〉에서 자기 몸 간수하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현실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직접 드러나는 맨몸의 부딪힘으로 나타난다. 현실이 인간에 대해서 갖는 원강한 독자적 폐적으로 인해 인간은 늘 늘 불확실성과 우연성 및 운명성을 지니게 되고, 그에게 있어서 세계는 항상 낯설게 보인다. 여기에 맨몸 드러나기가 나타난다. 옥련이 부모의 애정 속에서 세파라는 것을 모르고 지내다가 청일전쟁이라는 동북아 정세 변화의 중요한 사건으로 인해 맨몸이 현실에 노출된다. 현실에 노출된 맨몸은 현실의 폐적에 의해 휩쓸려간다. 그래서 옥련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 전혀 무지에 빠진다. 현실은 온통 새롭기만 하여 낯설다. 옥련이 청일전쟁을 당해 철환을 맞고 병신이 될지 안될지, 또 경상군의 집안 환경이나 일본의 모든 관습, 경상 부인의 모든 것, 그리고 미국이라는 곳, 거기에서 아버지와의 재회 등등이 불확실한 운명에 의해서 좌우되며, 그만큼 늘 우연에 자신을 맡긴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현실의 흐름을 이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옥련은 세파에 불가불 맨몸을 드러내 놓을 수 밖에 없

다. 옥련의 모든 운명은 자신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다. 옥련이 일본, 미국에 유학한 것이 자신의 행운으로 된 게 아니라 “운수불행”으로 기인한 것이며, 일본이며 미국의 모든 풍물이 낯설게, 그리고 두렵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낯선 곳에서 그 자신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 하나 간수하기에 바쁘다. 왜냐하면 모든 자신의 현재와 미래가 불확실하므로 자신의 맨몸 간수하기도 그 자신에게는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유랑의 생활 속에서 현실에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그것은 그의 영리한 두뇌와 눈치 빠름을 통해서이다. 옥련이 정상 부인의 집을 나왔을 때 갈 곳은 없고 하여 어디든지 가려고 자동까지 차를 타고 가다가 구완서를 기차 안에서 만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옥련은 눈물을 흘리고, 또 조선말도 하고 일본말도 유창하게 하여 구완서로 하여금 관심을 끌게 하여 결국 구완서의 도움을 얻는다. 그리고 정상 부인이 개가하려 할 때 친딸 같이 행동를 하여 결국 정상 부인의 도움을 얻어 소학교까지 졸업하게 된다. 또한 언어가 불통될 때에는 눈치로 알아보는 재치를 발휘하기도 한다. 특히 이 눈치 빠름은 그의 유랑 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몸을 간수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 이런 눈치 빠른 재치가 없었다면 그는 아마 그 유랑 생활을 견뎌내지 못하고 말았을 것이다. 즉, 유아시기에 인생이 종말났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볼 때 옥련이야말로 시대를 살아가는 민중의 인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옥련의 삶 속에 이인직의 추상적 인 계동의식이 끼어들 수 있겠는가. 유랑 생활이 지니는 소설적 견고성에서 이 인직의 관념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만일 개입된다면 겨우 상징성이나 암시성 정도의 시적, 주관적 영역에서 일 뿐이다. 오히려 이인직 자신의 생체기가 그대로 드러날 수는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인물과 그 자신과의 대화성인 것이다. 옥련의 삶은 이인직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며, 작가는 독자와 인물에게 끊임없이 질문과 응답을 한다.

그러면 〈혈의 누〉에 나타난 유민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유민의 유형이나 그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론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혈의 누〉에 나타난 유민이 이인직에 의해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는가를 보기로 하겠다. 19세기에 이르러 한국내에는 지배층과 민중 사이에 어떤 의사소통 가능성도 보이지 않은 채 민중의 반봉건 지향에 대한

목소리가 외세와 연합한 지배층에 의해 탄압된다. 그리하여 민중은 외세의 침탈 대상이 된다.³⁴⁾ 민중의 요구가 무산된 채 일부 지배층에서 반봉건과 자주독립을 주장하고 나서나 수구파 지배층에 의해 반봉건은 억눌려지고, 민중은 이중적 침탈로 인해 유민이 된다.³⁵⁾ 이인적이 이러한 반봉건 지향을 통해서 자신의 개화의식을 드러내려 했다. 여기서 그것은 민중의 생활상을 보여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혈의 누>의 민중의 삶은 그런 유민화 경향을 통해서 반봉건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친일적인 개화파 쪽에서 제시한 현실의 모습을 통한 민중의 삶이기 때문에 자주독립보다 외세 의존적 반봉건이었으며, 그러한 반봉건이었기 때문에 민중의 삶과는 거리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인적이 자신의 외세 의존적 개화론을 <혈의 누>에서 아무리 강요 하려고 하더라도 민중적 유민은 어떤 반응도 보일 수 없었던 듯하다. 그것이 바로 옥련의 유민적 삶이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침탈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난 이후 외세 의존적 반봉건이 어떤 의의를 떨 수 있겠는가. 사실상 갑신정변 이후 친일파의 삶이 유민화되어 어떤 민중 지도적 의식이 무의미화된 마당에서 민중적 삶의 세계에 개입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중 쪽에서 받아 들일 수도 없는 것이다.³⁶⁾ 왜냐하면 민중의 반봉건이 반외세와 같은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김판일이 변두리 양반 계층이기는 하나 지배층의 세계에 속하지 못

34) 진덕규, “조선후기 정치사회의 권력 구조에 관한 정치사적 인식”, 19세기 한국 전통 사회의 변모와 민족의식, 민족문화총서 1, 《고대민족 문화연구 소》, 1982), p. 32.

35) 벡캔지에 의하면 의병의 대부분이 나이 어린 소년들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한국의 독립운동, 이광진역, 《일조사, 1969》p. 120), 임오군란, 동학 혁명 이후 많은 유민 현상과 대부분 소작인들의 유민화 현상은 19세기 후반의 민중의 유민화 경향을 드러낸다.

36) 갑신정변의 실패가 일본에 너무 의존한 개화당의 실책이었으며, 그로 인해 김옥균 이하 개화당이 일본, 미국 등으로 유랑하는 신세가 되며, 서재필의 독립신문이 의병을 도적으로 물고 있는 한계는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의 지식이 지닌 한계로 지식층유민현상에 다를 아니다. 그래서 북방적 유민에 비해 남방적 유민 현상은 보다 빨리 나타나며 그것은 주로 지식층에서 이루어진다. 이인적도 이러한 개화파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의병을匪徒로 물려고 한 것은 日帝였음을 벡캔지는 앞의 책(p. 120)에서 밝히고 있다.) 그리고 남방적 유민은 1922년 이후 대형화되어 일본에 노동자 이

할 뿐만 아니라, 청일전쟁으로 빈한한 유민층으로 전락한 것은 당시의 계층분화가 종래의 양반—상민에서 지배자상가층—피지배유민층으로 형성됨을 알 수 있으며, 지식계층에 있어서도 전통적 엘리트 계층과 신홍 엘리트 계층이 부동된 채 계층의 분명한 세계를 점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피지배 유민층이 당시 민중을 대변하고 있으며, 그들의 대부분이 정신적, 물리적 유랑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음은 한국의 근대사의 과정상에서 새로운 민중 문화의 유형을 방대하게 놓을 조짐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직 학문적인 설정이나 史的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마당에서³⁷⁾ 근대적 의미의 민중 개념을 펼자는 19세기 말의 유민에서 찾아 보려고 한 것이다.

주가 격증한다. 그 전에는 1899년 7월 28일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 금지 규정에 의해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주로 유학생 유민만이 나타난다. (高承濟, 한국 이민사 연구, 《文章閣》, 1973) p. 236) 그런데 이 유학생 유민에 대해서는 그 정신적 유민화 과정을 살필 수 있겠다. 이에 대해서는 考를 달리하여 밝혀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김윤식 교수는 이들의 그 정신적 상흔에 대해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네랄로 너를 치리라”, 뿌리 깊은 나무, 1977. 11월호)

- 37) 流民은 한민족의 형성과 함께 이루어진 流浪生活을 영위하는 부류를 일컫는다. 그런데 이 流民이 民으로서 형성되면서 동시에 정치, 문화, 사회사적 의미를 떠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이후부터인가 한다. 民은 곧 백성, 평민, 민중을 의미하며, 이 民이 한국사에서 동태적인 개념을 떠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부터이다. 정창렬교수에 의하면 조선조 초기에는 民이 무의식적으로 자체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그치는 “백성의식”에 그치나, 19세기에 와서는 인간적 해방을 부르짖는 “평민의식”이었으며, 하지 만 “양반문화나 사회에 대한 회의와 비판에서 그치고 있을 뿐 스스로를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회의 담당 주체로 의식하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다. (정창렬, “백성의식·평민의식·민중의식”, 역사와 인간, 변형윤, 송건호 편, 《두배》, 1982), pp. 22~3)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러한 평민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는 문화적 양식으로 판소리나 가면극, 평민 소설을 들고 있으며 (p. 22), 하지만 아직 “사회적 해방에 대한 지향은 부차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으며, “민족으로서의 자기 인식”도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고 있다(p. 23). 그런데 流民은 바로 19세기 이후 나타난다. 한발로 인한 기근과 농민층의 문화와 계급의 해체와 상업자본의 형성을 통해서 대부분의 소작농이나 民이 流民을 이루게 된다. (趙璇, “19세기 민란의 사회적 배경”, 19세기 한국 전통 사회의 변모와 민중의식, 진덕규 외,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2), p. 197, 207, 217, 228) 이 流民이 대부분의 한국인,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피지배층으로서의 民衆임

〈혈의 누〉에 나타난 유민은 이인적의 의식과는 관계없이 한국 근대사의 한 유민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김관일이나 구완서까지도 유민으로 볼 때 이인적이 또 다른 의미의 유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청일전쟁, 그것이 일으킨 혼란의 소용돌이와 유민의 문학적 형성이 상호 동형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개화당의 유민화 과정이 갑신정변 실패후이인적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혈의 누〉의 소설사적 의의 ——유민적 삶의 문학사적 설정

옥련의 유랑 생활, 그것은 유민적 삶을 통해서 형성된다. 유민이라고 하면 전쟁이나 가렵주구로 고향을 떠나 떠도는 백성을 일컬으며, 이 유민은 한국사의 내면에 꾸준히 잠재되어 왔던 존재이다. 그러나 이 유민

은 말할 것도 없고, 이 流民은 19세기 후반에 오면서 보다 강력한 동태적 인 모습을 지니게 되나, 아직은 그 의식에 있어서 한계성을 지니는, 즉 적극적 주체의식을 지니지 못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한국 근대 초기의 民衆文化面에 있어서 이 流民이 차지하는 힘은 큰 것이었다 할 수 있다. 의병이나 활빈당 및 화전민 등 당시 한국민의 대부분이 유민화된다. 이것은 일제의 침략이후 더욱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의식면에 있어서도 이러한 유민 현상은 두드러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유민이 정치, 사회사적으로 볼 때 동학 혁명 이후 1910년 국치 사이를 거쳐 상당히 다른 의미를 냈다. 즉 1894년 이전까지의 流民이 반봉건과 반외세의 양면 사이에서 반봉건에 주목하여, 양반과 신흥 자본가 계층에 대립적인 것이었다면, 1895년 이후 1910년 사이를 거쳐서 반봉건과 반외세가 병행되다가 반봉건은 반외세와 동질의 차원으로 융합되어 반외세, 반봉건 지향의 민중은 인간적, 민족적, 사회적 의식이 낮으나 차차 높아지며, 반외세 지향의 민중은 민족적 의식이 높으나 인간적, 사회적 의식이 낮다. 전자가 철저한 전통적인 民의 개념에서의 민중이며, 후자는 새롭게 제국주의에 대한 의식을 통해서 民으로 변모되는 민중이다. 이 후자의 民衆은 그 전에는 양반층이었으나 일제의 침략으로 民의 지도층을 이룬다. 그런데 이 양자의 민중으로서의 합치는 1910년 이후가 아닌가 한다. 특히 변두리 양반층 중 개화파들의 정신적 유민화는 그보다 빠른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 民衆의 의식은 流民意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며 그것은 의식면이나 현실면이나 같은 것이 된다. 한국의 근대문학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런 유민의식의 변모 양상을 통해 문학사는 전개된다.

이 문화사적이고 소설사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조선조 말기 이후의 일이 아닌가 한다. 조선조 말기 이후 근거지를 잃은 많은 백성들의 삶이 유민적인 삶이 된다. 다음에서 한 사가의 유민형성과정에 대한 언급을 들어보기로 하자.³⁸⁾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零細小作農으로 몰락한 農民들의 생활은 가난에 빠들린 것이었다. 다구나 歲年이 되면 각지에 餓民의 沙汰가 나고 餓死者가 속출하였다. 자연히 農民들은 고향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유랑하는 流民이 되었다. 그 결과 農村은 비게 되고 한 面에 10戶도 못 되는 웃조차 생기게 되었다. 때로는 山 속으로 들어가서 火田民이 되었다. 일정한 주소를 가지지 않고 여기저기로 옮아가며 임시적인 開墾地에서 農業을 경영하는 것이었다. 수확은 적었고 따라서 생활은 가난하였다. 그러나 이 火田民에게도 官吏들의 손이 벌쳐서 稅를 빙아갔다. 農民들이 國境을 넘어 間島나 沿海州 등으로 移民 가는 流民이 증가한 것은 이러한 때문이었다.³⁹⁾

조선조 말기의 사회 현상이 이상과 같이 많은 유민을 낳았으며, 일본의 한국 침략 이후 이런 이민 혹은 유민 현상은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 이 유민 현상은 크게 세 방향으로 나눠 볼 수 있겠다. 첫째, 국내적 유민, 둘째, 간도나 연해주 등 북방적 유민, 세째, 일본이나 미국 등의 남방적 유민 등이 그것이다. 국내적 유민은 화전민을 비롯한 내국적 유민이며, 북방적 유민은 간도나 만주에의 농업 이민이나 한말, 일제하의 지사들이 여기에 속하고, 남방적 유민은 일본이나 미국에로의 균로 이민들이나 유학생들이 여기에 속한다.⁴⁰⁾

38) 民衆의 개념이나 그 사적 정리는 사회의 민중운동의 활동과 깊게 관련된다. 그래서 이 개념은 동태적으로 정리해야지 정태적인 것으로 정리해서는 안된다. 허균에서 신채호 및 1970년대 이후의 민중론을 우리 역사는 갖고 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민중론을 가질 것이다.

39) 이기백, *한국사신론*, 《일지사, 1978》, p. 303.

40) 특히 북방적 유민은 죄서해나 신채호(“浪客의 新年漫筆”에서 “낭객”은 곧 유민임)이 육사를 대표적 인물로 들 수 있으며, 남방적 유민은 이인직, 안창호, 이광수(이광수는 그 생활 근거지가 불안정해지자 거의 도피와 같은 일본유학길에 든다. 일제시대에 일본에 유학한 학생들이나 균로 이민들은 모두 여기에 넣을 수 있다)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국내적 유민과 북방적 유민에는 도적이나 의병 및 소작농, 개척민 등 대부분의 한국민을 들 수 있다. 그들은 민중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대자적”이든지 “즉자적”(한 완상, 민중사회학)이든지. 그리고以上の 분류가 그 외적 행동 양식에 의

이들 유민이 소설사적 의미를 띠기 시작한 것은 조선조 말기의 “이야기꾼”에서부터이다. 임형택에 의하면 18·9세기에 이르러 「이야기꾼은 전문적·직업적인 예능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였는데, 이 이야기꾼의 성격은 「① 講談師, ② 講讀師, ③ 講唱師로 구분」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들 이야기꾼의 이야기가 소설로 옮겨지거나⁴¹⁾ 민중의 의식을 대변하거나 독자층을 확대시켰다고 한다.⁴²⁾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꾼들은 주로 생활의 근거지가 없는 떠돌이들이다. 이 떠돌이들이 이야기꾼이 곧 소설사적 관계에 있어서 유민임이 중요하다. 이들이 자신의 삶을 소설적으로 형상화시킨 것으로써 대표적 작품이 변강쇠가이다. 변강쇠가의 특성은 생활의 근거지를 잃고 유랑하는 두 남녀와 그들의 주변에 모여드는 유랑인들의 유형(초라니, 타락한 풍자쟁이, 사당패 등)이 망라되어 있으며, 이들의 문화적 성격이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이라는 점에 있다.⁴³⁾ 이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비극적 회화성」을⁴⁴⁾ 띤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이 변강쇠가야말로 하층민의 삶이 소설적 구조로 표현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 소설적 구조란 민중의 현실적 삶의 실상에 대한 사실적 제시를 말한다. 이런 민중의 삶에 대한 소설적 구조는 기존의 가치에 대한 민중적 가치의 제시에 놓인다.⁴⁵⁾ 이런 주변적인 인물의 소설적 구조화는 기존의 양반적 가치에 대한 민중들의 일상적 삶의 재현을 통해서 드러나는 회극적이고 풍자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은 의식적이며 동태적이기보다는 이중성을 통해서 인간적인 해방을 표출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들의 삶을 현실적으로 제시하려다 보니까 자연

한 것이고, 그밖에 경제·사회적 유민, 정치적 유민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또 물리적 유민, 정신적 유민 등으로도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런 여러 분류들 사이에는 交互의 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유민의 개념에 대해서는 註 27) 37)을 참고할 것)

41) 임형택, “18·9세기〈이야기꾼〉과 소설의 발달”, 고전 문학을 찾아서, 김열규 외 편, 《문학과 지성사, 1976》, p. 311.

42) 상기서, pp. 331~2

43) 서종문, “‘변강쇠가’연구—유랑민의 비극적 삶의 형상화—“판소리의 이해”, 조동일, 김홍규편, 《창작과 비평사, 1978》, p. 282.

44) 서종문, 상기논문, p. 283.

45) 현실의 소설화 양상은 주로 바흐чен의 시정에 나타난 다원적 담론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다.

히 반문화적이고 반윤리적인 세계의 삶이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세계의 언어적 형태는 속담, 방언, 무속과 상징으로 나타난다.⁴⁶⁾

이러한 민중의 일상적 삶이 개화기에 이르러 〈혈의 누〉의 세계를 이룬다. 개화기가 외세의 난입으로 기존의 조선적 제 가치에 소용돌이를 일으킨 시기인 만큼 자체내에서 켜 오려면 민중적 삶의 표현이 깊이 있게 나타나기보다 새로운 세계에의 접촉을 통해서 제시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변강쇠가〉에서 보여진 평민적 세계관의 표현이 더욱 심화 확대 되기보다는 새로운 유형의 유랑만을 보이는 반항 전환만이 나타난다. 즉 강쇠가 용녀의 반윤리적이고 평민적인 유랑이 내용적으로 깊이를 갖지 못하고, 옥련의 외국 유랑을 놓는 청일전쟁의 후일담의 줄거리를 갖게 된 것은 청일전쟁을 전후한 한국사에서 민중의 정신적 유랑을 표현한 것이라 여겨진다. 그래서 〈혈의 누〉의 유민의식이 적극성을 떠지 못하고 소용돌이치는 소극적 민중의식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의식(주로 사회적인 면)이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혈의 누〉는 한국의 소설사에서 판소리 소설에서 보여진 평면적 세계관의 궁정적 계승임은 분명하다. 19세기 후반의 동학당 유민이나 영학당, 활빈당의 의식을 표현하기보다 더 많은 자신의 의식을 갖지 못한 민중들의 삶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반봉건을 통해 자기 의식을 갖는 과정이다. 그래서 옥련의 유랑은 민중의 자기 의식의 수업과정이다. 이는 아직 민족적 의식이 약한 것이다. 여기에 〈혈의 누〉의 계통성이 지니는 한계를 엿볼 수 있다. 즉, 〈혈의 누〉는 19세기 말의 한국 사회의 민중의식이다.

그리고 이 〈혈의 누〉가 지니는 이와같은 유민적 삶의 표출은 그 뒤에 〈무정〉의 작품 세계와 연결되는 것이다. 〈무정〉에서 영채나 형식의 삶이 유민적인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영채가 고아가 되어 유랑하는 과정과 형식의 유랑 행적이 〈무정〉의 작품 세계를 완강히 매고 있는 점은 〈혈의 누〉의 계승으로 파악할 수 있다.

46) 판소리의 민중의식을 너무 강조하면 오류를 범한다.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장적 대화성을 통해서 나타내는 이중성에서 나온 것이다. 그중의 하나가 광대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제기이다. 즉, 판소리의 민중의식은 광대의 삶을 통해 얻어지는 자연 발생적인 면이 많다.

〈변강쇠가〉에서 호구지책으로 유랑하는 하층민이 경제적인 면에 관련
지워진다면 〈혈의 누〉나 〈무정〉에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의식이라든가
정신면에서 까지 유랑하는 형태로 변천된다.⁴⁷⁾

3. 결 론

이상에서 필자는 〈혈의 누〉를 통해서 流民的 삶의 세계가 지닌 한국
근대 문학사 초창기의 양상 하나를 들춰내려 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
까지나 試驗임을 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나의 제안으로서의 성격
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을 밝혀 둔다.

그럼 다음에서 이상의 논급을 요약해 보기로 하겠다.

- 1) 〈혈의 누〉의 인물의 삶이 이인직의 의식만으로 규정해 버릴 수 없
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혈의 누〉의 인물들은 당시의 민중으로서 존재
하기 때문이다.
- 2) 그러한 것을 잘 나타내 주는 텍스트가 신문 연재본으로서의 〈혈의
누〉이며, 이 신문 연재본은 과행적 국한문체로 드러난 것으로 민중적
삶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3) 옥련은 유민이며, 19세기 후반기의 한국 민중의 유민 현상이 소
실화된 것으로 본다.

4) 이런 〈혈의 누〉의 유민적 삶의 세계는 그 전의 판소리 소설에서
그후의 〈무정〉으로 연결된다.

본 논고가 〈혈의 누〉 한 작품을 통해서 본 것은 이제 하나의 試考이
기 때문이다. 다음 기회에 보다 넓게 확대시켜 보려고 한다.

〈참 고 문 헌〉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탐구당, 1969.

47) 문학사의 맥락을 잡을 때 단선적인 파악이 위험함을 알고 있다. 그러나 본
고가 하나의 시론이기 때문에 그런 약점을 벗어날 수 없었다. 앞으로 판소
리와 〈혈의 누〉사이의 시대에 생산된 문학에 대해 보다 깊이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무정〉과, 그 뒤 최서해의 소설들과도 연결시켜 볼 수 있겠다.

- 권영민, 개화기소설의 문체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75.
- 김상현, 재일한국인, 어문학, 1969.
- 박동구, 현대한국소설의 성격연구, 문학세계사, 1981.
-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한국인의 생활의식과 민중예술, 성대출판부, 1983.
- 신용하, “광무개혁론의 문제점”, 창작과 비평, 1978, 가을호
- 이규태, 개화백경, 신태양사, 1969.
- 정석종, “홍경왜란”, 창작과 비평, 1972, 가을호
- 조동일, 한국문학사 4, 지식산업사, 1986.
- 한국국제문화협회, 재외한인의 사회와 문화, 1984.
- 한우근, 동학란 기인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소, 1979.
- M. Holquist ed., The Dialogic Imagination by M.M. Bakhtin, trans., C. Emerson, M. Holquist, Univ. of Texas Press, 1981.
- (그 외의 참고문헌은 본문의 각주란을 볼 것)